

성인 자녀의 부모 사별 경험에 대한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Adult Children's Experiences of Parental Bereavement

공수연·양정은*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전공

Kong, Su Youn · Yang, Sungeun*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examine adult children's experiences with parental bereavement and the effect of the experiences o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ir lives. In order to describe the subjects' experiences as they are and understand their meaning and essenc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Colaizzi method, an approach to phenomenology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findings showed that subjects suffered from the loss of parents; however, they recovered from their conditions after an ancestor worshipping service. In addition, they took heavy responsibility for a survived parent after bereavement and experienced changes in the roles of family members. In conclusion, experience with parental bereavement caused adult children to reflect on themselves, to discuss the essence of life, and to change the attitudes of their life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to a here-and-now perspective.

Keywords: parental bereavement, adult children, qualitative study, loss

I. 서 론

가족구성원의 죽음은 가족체계의 평형을 깨트리며, 남은 가족원들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초래한다. 유가족은 사별(bereavement)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역할의 상실, 수입의 감소, 가족지지의 결핍, 사회적 고립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Murry, 1994). 국외와 달리 가족원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 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가치는 사별 후 가족이 겪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어렵게 해왔다(양정은, 2008). 제한적이지만 사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사회복지분야, 간호학분야, 목회상담분야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별유가족의 심리적응, 애도대처양상, 사회적 지원서비스 등(김상우, 2003;

김오남, 2004; 김은경, 2002; 손의성, 2007; 임승희, 2007)에 초점을 두었으며, 간호학분야에서는 사별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간호중재에 중점(김상희, 2004; 두현정, 2008; 이미라, 2007; 이원희, 황애란, 2003; 전미영, 2000)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목회상담분야는 종교적 기반을 중심으로 사별 후 슬픔에 대한 애도 관련 상담연구(김진영, 2010; 신연순, 송정아, 2008)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상과 주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별연구의 대상에 따라 배우자 사별과 부모 사별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배우자 사별의 체험과 적응과정을 다룬 연구(강인, 최혜경, 1998; 김상희, 2004)에서 배우자 상실감은 자아복합성 및 대처행동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삶의 만족과 적응의 양상이 달라진

* Corresponding author: Yang, Sungeun
Tel: 032-860-8117, Fax: 032-865-5228
Email: syang@inha.ac.kr

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별로 인한 심리적 충격은 긍정적인 자아복합성을 지닐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반면, 소극적인 대처행동을 할수록 우울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기의 배우자 사별에 관한 연구들은 생존한 배우자의 적응, 스트레스 대처행동, 죽음에 대한 태도 등에 관심을 두었다(손의성, 2007; 전길양, 김정옥, 2000). 한편, 부모 사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 청소년, 대학생 자녀를 중심으로 이들의 사별 경험을 분석하였다. 부모 사별 후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두거나(박효실, 2002) 대학생의 상실경험에 초점을 둔 것(양성은, 2008)이 대표적이다. 부모 사별 연구에서 성인 자녀를 간과한 것은 노부모의 죽음이 예측가능한 가족발달주기 상의 규범적 사건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사별연구의 주제는 대부분 사별 후 겪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두고, 우울감, 슬픔, 자기효능감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김승연 외, 2007; 박효실, 2002; 전길양, 김정옥, 2000; 정인순, 2008).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가족사별의 슬픔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영역 등 다양한 방면으로 표출된다. 유가족은 충격, 부정, 혼란, 분리에 대한 고통 등을 경험하면서 가족 내 갈등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적응이 이루어지면, 고인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게 되며, 가족 내 갈등이 조정되면서, 가족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별 후 반응은 긍정적으로 승화되거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면서 삶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 결국 일상에 적응을 하게 된다.

사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성인 자녀가 부모의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이 부족하다.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각 개인의 신체적 변화, 사회적 역할 전환, 개인적 경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김태현, 임선영, 2004). 성인 자녀는 부모를 사별하면서 본인의 삶에 대한 재평가, 죽음에 대한 의미부여, 사망한 부모와의 미해결 과제에 대한 대처, 자녀로서의 역할 조정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생존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패턴이 변화할 수 있고, 가족 내 가치관, 규칙, 의사소통 방식 등이 재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유가족의 사별 후 적응과 이에 대한 중재를 역설하면서도 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다. 사별 후 슬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족원들의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있다는 연구결과(정인순, 2008)를 고려할 때, 사별 후 가족관계

측면의 역동적 변화에 관심을 갖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사별을 경험한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사별이 성인 자녀에게 어떠한 경험을 주며, 사별 후 가족관계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그대로 기술(description)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특정 현상에 대한 경험의 본질과 구조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하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을 서술하는데 목적을 둔다(신경림 외, 2004).

현상학은 인간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자연과학의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이 갖는 제한점을 비판한다(홍현미라 외, 2008). 현상학의 시각에서 볼 때, 과학적 객관주의는 인간의 삶을 둘러싼 가치들을 계량화하고 수량화하는 것만을 “과학적”이라고 간주한다(신충식, 2009). 그러나 현상학의 출발은 일상체험이다. 체험 그 자체가 모든 방법들이 의지하고 있는 본래적인 방법이 되어야 하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현상학은 세계에 대한 존재론(the ontology of the world)보다는 체험의 세계(the world of experience)를 보다 중시한다(Zahavi, 2004). 때문에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의 의미를 기술한다(크로스웰, 1998/2005). 연구참여자들의 시각으로부터 살아있는 경험(the lived experience)에 대한 이해를 얻는데 목적을 두며,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적인 접근이 적합하다(패짓, 1998/2001).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모님 사망 후 3년이 되지 않은 성인을 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며, 양친부모의 사망인 경우 첫 번째 사망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제한하였다. 사별

후 최근 3년으로 제한한 것은 많은 학자들이 사별로 인한 슬픔의 과정을 약 2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Horon, 1994; Wolfelt, 1988)로, 사별 후 슬픔과정의 절정경험(Peak-experiences)과 사별 후에 완만한 적응과정을 포괄하기위해 약 3년 이내로 규정하였다.

성인 자녀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할 것은 첫째,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가족사별의 대상이 배우자 혹은 청소년기 자녀가 주가 되어 성인 자녀들의 사별경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성인 자녀들의 부모 사별 경험은 자연스럽게 맞는 규범적인 사건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가족사별 후 슬픔의 정도가 20代보다 50代가 높다(전미영, 2000)는 연구결과는 성인 자녀들의 가족사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성인 자녀들의 부모 사별에 대한 경험 외에 사별 후 가족관계의 변화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 사별 자녀는 부모의 사별사건으로 야기된 상실감과 사별슬픔, 그리고 변화된 가족구조 속에서의 새로운 역할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중적응 구조를 가지게 된다(박효실, 2002). 더욱이 전반적 가족이념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립으로 혼재하는 양상(김영희, 1998)을 보인다. 이는 생존부모와 성인 자녀들이 부모 사별 후에 새로운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 국면하게 되며, 가족관계가 전통성과 현대성에 대한 가치관이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결혼 후 생성된 생식가족과, 원가족과의 관계까지 확대하여 가족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성인자녀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이유에서이다. 중년기 시기는 발달특성상 성(性)적 변화, 정체감의 위기, 역할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위기감을 경험하기도 하며, 노부모와 자녀의 기대와 요구사이에서, 그리고 변화하는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욕구 사이에서 선택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김명자, 1998)으로 다소 복합적인 발달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은 부모사별이란 사건으로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변화시켰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근거로 선정된 연구참여자는 27명이었다. 개별심층면접을 진행한 연구참여자는 30명이었으나, 심층면접 과정에서 노인 법정 기준인 65세 이상(통계청, 2007)의 고령자 2명은 제외하였고, 사별기간이 4년에 가까워 약 3년 이내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1명을 제외시

켰다. 따라서 최종 연구참여자는 27명으로 부모의 사별을 경험한 성인 자녀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자료수집

현상학은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때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로 준거를 정한다. 현상학의 자료수집과 관련해, 크로스웰(1998/2005)은 특정 현상을 경험한 10명 이상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며,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괄호치기(bracketing)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심층면접을 주된 자료수집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면접내용은 부모를 사별한 성인 자녀와 가족 내 변화되는 역동에 초점을 두어 부모님 사망과 관련된 상황, 부모님 사망 직후 역할과 반응, 부모님과의 관계, 생식가족과 원가족과의 관계, 장기적 변화, 죽음의 의미였다. 자료 수집은 2006년 4월-6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면접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부모를 사별한 성인 자녀들의 심리적 위축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면접시간과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결정에 따랐으며, 연구윤리에 따라 연구내용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4. 자료 분석

질적 연구는 특정 현상에 대한 서술과 해석, 통찰과 발견에 목적이 있다(패짓, 1998/2001). 본 연구자는 사별이란 현상에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인터뷰의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Colaizzi(1978)가 제시한 진술, 의미, 주제군, 철저한 기술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을 활용한 자료의 처리는 현상학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절차(크로스웰, 1998/2005)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참여자가 진술한 면담자료를 모두 축어록으로 작성한 뒤,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의미단위를 찾아내 줄 단위 분석(line-by-line analysis)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유사한 의미단위들을 묶어 하위범주로, 다시 하위범주들을 묶어서 범주로 통합하는 범주화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것은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범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세계에 있는 의미단위와 범주들에서 통합적인 구조를 발견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나이 (만)	고인과의 관계	학력	직업	동거가족	사별 기간 (개월)	사망 원인	생존 부모	형제 관계
1	남	28	부자	대졸	은행원	어머니	24	간경변	모	2남 1녀 중 막내
2	남	40	모자	고졸	공무원	아내, 아들2	37	유방암	없음	5남 2녀 중 3남
3	남	59	부자	대졸	회사원	아내, 딸1, 사위1, 아들2	30	뇌출혈	없음	1남 5녀 중 독자
4	남	26	부자	대졸	사회 복지사	어머니	36	위암	모	1남 2녀 중 장남
5	남	47	부자	대졸	자영업	아내, 아들1	26	폐질환	모	4남 2녀 중 3남
6	남	41	부자	고졸	회사원	아내, 아들1, 장인, 장모	18	식도암	모	4남 2녀 중 차남
7	남	30	부자	대졸	자영업	어머니	7	식도암	모	3남 중 막내
8	남	32	부자	대졸	엔지 니어	단독거주	4	당뇨	모	1남 2녀 중 장남
9	남	37	부자	대졸	무직	어머니	19	위암	모	3남 3녀 중 막내
10	남	35	부자	대학원 졸	회사원	아내, 딸1, 아들1	26	돌연사	모	3남 4녀 중 막내
11	남	42	부자	고졸	자영업	아내, 딸1, 아들1	22	폐암	모	3남 2녀 중 장남
12	남	40	부자	고졸	자영업	딸1, 아들1	15	심장 마비	모	3남 1녀 중 차남
13	여	37	부녀	대졸	공무원	남편, 딸1, 아들2	8	두경 부암	모	1남 4녀 중 3녀
14	여	32	부녀	대졸	주부	남편, 딸1, 아들1	14	교통 사고	모	2남 4녀 중 막내
15	여	44	부녀	대졸	주부	남편, 딸2, 아들2	30	합병증	모	2남 1녀 중 중간
16	여	43	부녀	대학원 졸	어린이집 원장	남편, 딸1, 아들1, 어머니	37	폐혈증	모	3남 2녀 중 막내
17	여	38	모녀	대졸	약사	남편, 딸2, 아들1	5	폐암	없음	8녀 중 차녀
18	여	50	모녀	고졸	주부	남편, 딸1, 아들1	18	뇌졸중	없음	2남 2녀 중 차녀
19	여	44	부녀	고졸	주부	남편, 딸1, 아들1	16	췌장암	모	3남 1녀 중 장녀
20	여	33	모녀	대졸	대학원생	단독거주	33	천식	부	4녀 중 막내
21	여	39	부녀	고졸	주부	남편, 딸2, 아들1	33	위암	모	3남 3녀 중 차녀
22	여	49	부녀	고졸	공무원	남편, 딸2, 아들1	4	뇌출혈	모	1남 7녀 중 차녀
23	여	41	부녀	대학원 졸	보험업	남편, 딸1, 아들1	9	돌연사	모	3녀 중 막내
24	여	42	부녀	대학원 졸	대학원생	남편, 딸1, 아들1	19	심근 경색	모	1남 3녀 중 장녀
25	여	49	부녀	고졸	주부	남편, 딸1	10	심장 마비	모	1남 7녀 중 장녀
26	여	45	부녀	대졸	공무원	어머니	13	돌연사	모	2남 3녀 중 막내
27	여	44	부녀	대졸	자영업	남편, 딸1, 아들1	3	후두암	모	2남 2녀 중 셋째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범주화 분석과 주제 분석을 통해 13의 주제를 발견하였으며, 연구결과에서는 범주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초기분석 단계에서 남녀 성차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주제로 부각되지 않아 2차 분석 시 성차를 재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산 배분 등의 경제적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연구의 전체 맥락 속에서 원가족, 생식가족과의 관계 변화에서 주된 이슈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제시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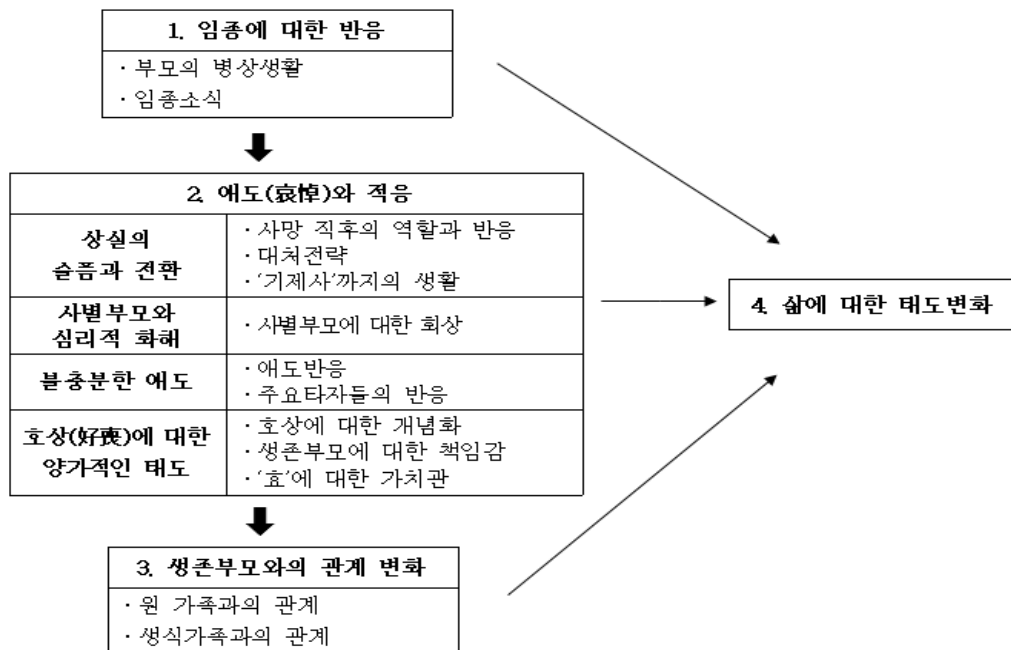
전사본을 읽으며 현장에서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중요한 단서와 내용, 떠오르는 생각, 전체의 느낌, 의문점 등 연구자의 솔직한 감정을 연구자가 메모하여 분석과정으로 추가하였다. 이는 연구의 본질과 연구가 지식의 가치라는 점에서 당신에게 준 영감, 그리고 당신의 전문가적·개인적 생활의 미래 방향을 언급하는 짙막하면서도 창조적인 결론을 작성하라는 Moustakas(1994)의 제안을 받아들여 연구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이다.

연구에 참여한 성인 자녀들은 부모 사별 사건을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 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부모 사별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심층면담 진술 자료를 분석하여 13개 의미범주, 4개의 주제로 나누어 [그림 1]과 같이 도식으로 제시하였다.

1. 임종에 대한 반응

가족체계에서 한 사람이 아프거나, 죽음을 맞게 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은 순기능적이든, 역기능적이든 변화로 인한 불균형에 적응을 해야 한다. 예상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으로 인한 사별은 가족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다.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상실의 슬픔을 맞는 참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투병생활을 바라보면서 막연한 기대감, 불안, 허무함, 원망, 분노, 죄책감에 휩싸였고, 임종을 맞은 직후에도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다.” “믿을 수 없다.”고 죽음을 부정하였다. 죽음 앞에 이들은 아무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라보면서 영영 우는 것 밖에 없었어요 (#16)라며 무력감을 토로하였다.

Ⅲ. 연구결과



[그림 1] 성인 자녀의 부모 사별 경험

아버님이 맨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지켜볼 수 있게 하느라고 심폐소생술만 시켜가지고 심장을 뛰게 만들어 기계를 빼지는 않았던 상태였거든요. 사람이 허망하다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저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하던데, 사람은 다 죽었는데 심장을 기계로 작동시켜 놓으니깐 피부혈색이 다 돌고 그러데요. “사람이 허망하구나. 자기의지대로 저렇게 육체하고 의지하고 정신하고 정말 많이 다른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식들을 오게 하고 임종보고 이제 그러면서 기계를 딱 빼니 바로 싸늘하게 식기 시작하는데 참 사람이 이렇게 맥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잠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4)

한편으론, 부모님의 오랜 투병생활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들의 견해였다.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더 행복하시겠다 생각(#13)을 하였고,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려야 한다는 것이 부모를 사별한 성인 자녀들의 입장이었다.

아플 때 고통이 너무 심하셨으니까 지켜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아프실 때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새벽에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서 혼자 울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라보는 입장이 참 이거.. 이러면 불효자식인데 이거.. 허허.. 정말 이렇게 고생하실 바에는 평화롭게 빨리 세포활동이 정지되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2)

2. 애도(哀悼)와 적응

(1) 상실의 슬픔과 전환

부모님을 상실한 성인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의 슬픔과 죄스러움, 죄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3), 서글픈 마음이 상당히 오래간다(#5)고 하였다. 또한, 전혀 아무생각 할 수도 없고 계속 추억에 사로잡혀 있으며(#11), 그저 멍한 상태였다(#17)고 표현 하였다.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안아만 있기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봉 떠 있는 느낌(#13)의 연속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부모님을 잃은 후 한동안 여전히 죽음에 대한 불

신, 홀로 남겨계신 부모님에 대한 측은함과 걱정, 책임감, 불안, 우울, 허전함 등 복잡한 심정이 반복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바깥출입도 못하고 그냥 가만있어도 눈물 나고 그래서 한동안은 바깥에도 못나가고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겹치고 해가지고... 잠도 좀 못자고, 수면제 같은 것을 먹어야 할 정도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숨어 있듯이 남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전화통화도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한 두 세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0)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기분이 들 때면 “아버지 저 잘 살게요.” 주문 외듯이 선산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16), 처자식들 모르게 혼자 소주를 두병 거뜬히 마시(#11)는가 하면, 담배만 태우거나, 차라리 어디 시끄러운 모임(#9)에 참석하기도 한다. 때로는 아버지하고 있었던 과거 추억을 생각하며 쓴 웃음도 짓고,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움을 달랜다(#23).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 사망 1년 후 첫 번째 맞는 기제사를 기점으로 슬픔의 과정이 전환되었다. 부모를 상실한 성인 자녀들은 가장 힘들었던 1년 동안의 슬픔, 허전함, 서글픔, 애처로움, 그리움의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덩뭉해진다고 표현하였다.

아버지의 책상 위에 있는 영정 사진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여전히 곁에 계신 것 같아 아버지의 죽음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첫 번째 기제사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젠 정말로 우리 곁을 떠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님이 생전에 어머니 고생을 너무 많이 시키셨으니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도록 지켜주시라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기도드리고 왔습니다. (#26)

(2) 사별부모와 심리적 화해

연구참여자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생전의 생활들을 회상한다. 회상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별한 부모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억하며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사별 전 다소 갈등적인 관계 혹은 소원한 관

계였을지라도 이들은 안쓰러움, 야속, 안타까움, 죄책감의 감정을 드러내며 긍정적 편향을 하였다.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아무 일 없어도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늘 무서웠죠. 그래서 아버지와는 관계가 멀었어요. 깊은 대화도 없었고, 거리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있었을 때 더 다정하게 친구처럼 지내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스럽고 죄송해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해줬어요. 지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도 했어요. 살아계실 때는 용서가 안 되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네요. (#22)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 바람도 있었는데 막상 돌아가셔서버리니까 원망도 기대도 다 없어지고, 부모에 대한 역할, 나도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아버지”라는 의미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5)

(3) 불충분한 애도

연구참여자들은 상실 슬픔에 대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 연구참여자인 성인 자녀 모두는 굉장히 스스로 괴로웠는데, 어머님 생각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1)하며, 생존부모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상실의 슬픔을 서둘러 추스린다. 상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이성을 마비시키며 극심한 고통을 맞보게 한다. 이런 고통 속에 참여자들의 애도과정은 혼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11),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삭히거나(#6), 주위에서 울지 말라고 하거나(#18), 상가에서 너무 크게 울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소리 죽이며 우는 것(#2)이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소 슬픔을 억제(抑制)하는 경향을 보인다. 더군다나 친인척, 동료, 친구는 물론 부모를 잃은 동일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동질집단인 가족들 간에도 서로 위로받지 못한 채 스스로 슬픔을 달랠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솔직하게 억눌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책임감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년이 될 때까지는 좀 자제를 하고 거의 어머님 기분, 마음 맞춰드리려고 하

고 아버님에 대한 생각은 사실 1년 때까지 거의 안 하려고 했었어요. (#4)

(4) 호상(好喪)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

부모의 죽음이란 사건 후에 성인 자녀들은 자식 된 도리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이율배반적인 양상을 갖는다. 연구참여자들은 호상의 의미를 구분하여 개념화 하였는데, 오랜 병환으로 고통에서 해방(#13)되었기 때문에 호상이라는 것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고(#3), 억울하며(#19), 애상, 슬픈 상(#2)이기 때문에 호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자식이 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 살을 사셔도 호상이라고 생각하는 자식은 없겠죠.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고통보다 더 나은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호상이겠지만, 고통을 이겨내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호상이 아니겠죠. 제가 호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힘들겠습니다. (#5)

모든 참여자들은 생존한 부모님을 책임지는 것은 자녀들의 몫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었다. “효”라는 가치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문화에서 이들은 자신이 불효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효의 실천은 자식의 도리로 당연한 것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즉, 참여자들은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가치를 부여하고, 지향한다. 예컨대, 참여자들 모두는 가장 후회되는 일은 “불효”라고 일축하였고, 만약 살아계신다면 효도 차 여행을 꼭 시켜드리고 싶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지만 결국 남겨진 부모님에 대한 태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부담스러워 하며, 부양의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는 참여자들이 진술한 “효”라는 개념이 부모에게 가장 이상적인 실천 가치라는 정의에 모순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직 생존해 계시는 또 다른 부모님께 효도 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론 부담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결국, 연구참여자들은 사별한 부모님에게 못해드렸던 것에 대한 후회, 죄스러움 등이 생존부모에 대한 책임감으로 대체되면서 불효자의 대상에서 자신을 제외시키며, 심리적 안정을 얻는

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은 보상심리가 내재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3. 생존부모와의 관계 변화

부모를 사별한 성인 자녀들은 홀로 남겨진 생존부모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이 가중됨과 동시에 생식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가 엄마가 가련하고 측은하고, 불쌍(#22)하기도 하고, 짝하다 싶어 가지고 더 많이 챙겨드리며(#24), 엄마하고 더 가까워(#23)진다. 마음 적으로 안타깝고 어머니가 혼자계시다 보니까 마음이 더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27)이라고 진술하였다. 예전에는 특별한 날에 용돈이나 송금하여 자식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저녁에라도 내려와서 어머니 얼굴을 뵈고 아침에 올라가도록 만언니가 명령(#26)하기도 한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오빠들은 각자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남은 게 어머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켜줘야 되는 입장, 보호자 역할이었지요. 어머님 혼자 사실 수 없기에 아버지의 빈 공간을 채워야 했기에 부모가 살고 있었던 집을 개조해서 지금은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딸 아이 하나를 더 키우는 것처럼 친정엄마는 그렇게 되네요. (#16)

이처럼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은 때로는 결혼 후 형성된 생식가족과의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를 잃은 슬픔을 함께 공유하는 원가족들과는 달리 대부분 생식가족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별한 부모에 대한 개방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외면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버님 사망에 대해 많은 대화를 하진 못했지만 저하고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5).” 라며 막연히 같은 마음일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외로울 거 같으니까 집도 리모델링해서 현대식으로 고쳐놨는데 남동생네가 이사를 들어온다고 하더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동생만 집에 왔다 갔다하지 올케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용서가 안 돼.

들이만 자유스럽게 살다보니까 시댁식구하고 산다 생각하니까 답답했던 모양인지 혼자 원룸에서 옮겨서 살고 있는 거 같아요. 어머님도 같이 못사시겠다고 하세요. 엄마도 아들 하나니까 아들며느리한테 공양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포기했어요. (#22)

한편, 사별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원가족의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사별 후 가족들은 서로 간에 순기능적이든, 역기능적이든 역할을 분담하며, 생존부모에 대한 “효”라는 명목아래 가족 내 일정한 상태와 일상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큰오빠가 가장이되고 오빠 중심으로 가족이 변해갔어요.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오빠의 교육 흐름이 그대로 하는 행동을 볼 수 있었어요. 여자들도 몇 시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런 게 닳아가더라고요. (#14)

4. 삶에 대한 태도변화

연구참여자들은 죽음은 인간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요, 순리라는 인식 속에 죽음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온다면 받아 들여야겠죠(#6)라며 공통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모님의 사별 후 이들은 사별한 아버님의 영향(#4)을 받아, 삶의 태도를 보고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겠다(#22)고 다짐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좋을가 하는 걸 제일 많이 생각(#18)하며, 행복한 죽음에 대해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는다.

어차피 사람은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있고, 엄마도 아직 젊으시고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래서인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현재를 즐겁게 살자”로 바뀌었어요. 현재 내 가족한테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애정 같은 것도 가슴속에만 담아두고 표현 같은 걸 안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내가 표현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보내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미래라든가 그런

걸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현재를 희생하더라도 미래에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현재의 즐거움은 별로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

즉,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잘 해야겠다(#13)라는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움, 후회, 죄책감은 세상 살아가는 새로운 시각(#8)을 트게 하고, 형편이 어려워져 나중에 해야지 했는데, 이 기회가 지나버리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필요할 때 쓰고 넘어(#22)가는 형태로 삶의 양상이 바뀌었다.

IV. 논의

본 연구는 성인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 사별의 경험은 어떠한가, 이러한 경험이 유가족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인 자녀의 부모 사별 후 반응, 애도 과정, 가족관계의 변화,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현상학적 분석으로 규명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가 쾌차(快差)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다가 죽음에 직면하면서 허무감, 분노, 원망 등의 정서적 경험을 한다. 이러한 복합적 정서는 사별 후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죽음 앞에 인간이 느끼는 근본적인 무력감이 표현되었다. 남겨진 가족원들은 상실에 대한 슬픔과 사별 부모의 역할부재로 인해 사별 직후에는 가족체계의 항상성 유지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시간 경과와 함께 유가족들은 사별에 대처하면서 새로운 적응에 이르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슬픔에 적응하는 동안 사별한 부모를 이해하려는 심리적 화해를 시도하였다. 고인과 지속적인 심리적 유대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애도 반응이며, 사별 후 건강한 적응을 위해 유가족들은 고인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자 한다(Marwit & Klass, 1996). 연구참여자들이 보인 심리적 화해의 이면에는 복합적인 방어기제가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실의 고통에서 부모님을 긍정적으로 회상하는 것은 죄책감에 대한 투사일 수도 있고, 상실로 인한 슬픈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무의식적 노력일 수도 있으며, 그리움에 대한 보상일 수 있다. 이들은 사별 부모가

“좋은 곳으로 갔다”고 막연하게 믿음으로써 사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한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계속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관계를 반추하고 그 기억들을 정리하면서 점차적으로 상실의 슬픔을 극복해 나간다. 특히 전통 의식(ritual)의 역할에 주목해야하는데, 기제사는 연구참여자들이 슬픔에서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충분한 애도를 위하여 최소한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김진영, 2010)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 문제는 애도가 사별에 대한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며, 사별 후 효과적인 적응을 위하여 필수적(Hogan & Schmidt, 2002)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소극적이고 위축된 대처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사별이란 충격적인 사건에 상실을 빨리 극복하고 슬픔을 견디라는 압박을 가한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사별을 경험한 자녀들의 심리적 위축을 강화시키며, 충분한 애도과정을 억압시킬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애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성은 가족 내에서도 조장된다. 사별로 인한 가족 전환기의 가족원들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타협과 조정을 필요로 하는데(Burnham, 1998),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내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슬픔을 억압하는 동시에 사별한 부모를 언급하는 것이 다른 가족원들의 슬픔을 다시 유발할까봐 두려워하였다.

가족이 소통하는 방식은 사별한 가족구성원 개인의 애도과정 뿐 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재창조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준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의 패턴은 상실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충분한 애도”라는 필수 과제를 완수하는데 방해가 된다. 사별가족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가족 내 원활한 의사소통과 죽음에 대처하는 태도들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사별 후 가족의 역할과 관계는 변화하게 되는데, 특히 사별 부모의 부재는 성인 자녀에게 생존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 상실의 슬픔과 생존 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을 갖게 되며, 생존 부모는 배우자 상실의 슬픔과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중부담을 갖는다. 사별 후 성인 자녀는 부모를 지지하던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의 보호자 역할로 점차적인

전환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성인기에 도달하고 부모가 중년기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들의 관계는 역할전환이 이루어져 초기 부모-자녀관계에서 이루어지던 도움의 균형이 바뀌게 된다(김태현, 1995)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부모 사별 경험은 성인 자녀인 자신의 죽음을 반추해 봄으로써 앞으로 처하게 될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초점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지금-여기(here and now)”로 변화됨을 토로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자녀들의 부모 사별 경험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essence)이다. 성인 자녀들이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발달단계의 특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3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의 연령적 특성이 죽음 및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갤럽(2009)이 발표한 “한국인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59.7%)는 응답이 죽음이 두렵다(36.5%)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자(39.7%)가 남자(33.3%)보다 죽음을 두렵다고 인식했다. 연령별 차이에서는 20대의 42.4%, 30대의 38.6%, 40대의 42.6%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조사되었다. 하지만 50대의 26.1%,와 60대의 27.9%만이 죽음이 두렵다고 대답함으로써 5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평균 사망 연령에 근접할수록 죽음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보여준 태도와도 연결될 수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와의 사별을 통해 죽음을 간접 경험한 후, 다음 세대인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본인의 삶에 대한 반영적 사고를 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 하면서 결국 현재의 삶에 충실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부모 사별 후 성인 자녀의 삶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은 자신들의 생식가족 때문이다. 부모를 사별한 성인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주된 정서는 “두려움”이었다. 특히 본인의 죽음으로 인해 생식가족과의 이별을 하리라는 예측을 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야기된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사망으로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를 고민하게 되고, 가능한 자연스러운 죽음을 희망하게 된다. 이에 이들은 지금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다짐을 토

로했다. 부모의 사별은 성인 자녀에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존재하는 것이며, 매순간의 실존에 충실해야한다는 교훈을 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성인 자녀가 부모를 사별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현상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사별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양적연구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사별부모의 성(性)과 연구참여자의 성(性)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부-녀, 부-자, 모-녀, 모-자간의 관계를 보다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어머니와의 사별(4사례)에 비해 아버지와의 사별(23사례)이 압도적으로 많아 후속연구에서는 성차를 구별하여 부모자녀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연령대에 따른 사별 경험을 비교 분석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 연령대에 따라 부모 사별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한다면 세대별 사별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 청소년, 대학생 자녀나 배우자를 중심으로 사별을 연구하던 한계에서 벗어나 성인 자녀의 부모 사별 경험에 초점을 둬으로써 사별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공헌점을 지닌다.

주제어: 부모 사별, 성인 자녀, 질적 연구, 상실

참 고 문 헌

- 강인, 최혜경. (1998). 여성의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 적응 과정에서 개인 내적 요인들의 중재적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36(4), 95-107.
- 김명자. (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 김상우. (2003). 죽음으로 인한 일상적 삶의 위기와 파괴. **사회조사연구**, 18, 133-157.
- 김상희. (2004). 성인 여성의 배우자 사별 체험. 고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연, 고선규, 권정혜. (2007). 노인 집단에서 배우자의 사별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6(3), 573-596.
- 김영희. (1998). 결혼과 가족가치관에 대한 대학생의 태

- 도. **학생생활연구**, 23, 21-45.
- 김오남. (2004).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 85-118.
- 김은경. (2002). 호스피스센터에서 암으로 사별한 가족의 애도와 대처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2010). 애도과정의 목회상담적 이해. **목회와 상담**, 15, 122-149.
- 김태현. (1995). **노년학**. 서울: 교문사.
- 김태현, 임선영. (2004). 가족이념, 생활교류가 부모자녀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중년세대와 성인세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85-109.
- 두현정. (2008). 사별가족의 슬픔 적응 경험.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효실. (2002). 부모사별 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처자원과 가족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의성. (2007). 배우자 사별노인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 289-322.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연순, 송정아. (2008). 부/모 사별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정서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5, 235-282.
- 신충식. (2009). 질적 연구방법과 현상학. **사회과학**, 42(1), 85-112.
- 양성은. (2008). 부모 사별에 따른 대학생의 상실경험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9-49.
- 이미라. (2007). 애도 개념개발: 배우자 사별과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7(7), 1119-1130.
- 이원희, 황애란. (2003). 암으로 자녀와 사별한 어머니의 슬픔단계와 반응. **대한간호학회지**, 33(6), 847-855.
- 임승희. (2007). 사별가족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 **간호학탐구**, 16(1), 102-117.
- 전길양, 김정옥. (2000). 배우자 사별노인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 155-170.
- 전미영. (2000). 가족 사별 후의 슬픔 경험, 가족의 강인성 및 관리자원과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0(6), 1569-1579.
- 정인순. (2008). 호스피스 환자 사별 가족의 사별 슬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7). **2007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한국갤럽. (2009). **한국인의 죽음과 장례**. 서울: 한국갤럽.
- 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 Burnham, J. B. (1998). *Family Therapy : First Steps Towards a Systemic Approach*.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ile, R., & King, M.(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 CA: Sage.
-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율김 (200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 Hogan, N., & Schmidt, L. (2002). Testing the grief to personal growth model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eath Studies*, 26, 613-634.
- Horon, R. J. (1994). Family adjustment following the death of a parent. Doctoral Dissertation. Rosemead school of Psychology, Biola University.
- Marwit, J. S., & Klass, D. (1996). *Grief and the Role of the inner Representation of the Deceased*, in Klass, D., Silverman, R. P., & Nickman, L. S.(Eds), Bond: *New Understanding Grief* 297-309. Washington: Taylor & Francis.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Murry, C. I. (1994). Death dying, and bereavement. In McKenry, P. C., & Price, S. J. (Eds.), *Families and change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173-194. CA: Sage.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s and Rewards*, CA: Sage.
- 유태균, 율김 (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나남.
- Wolfelt, A. D. (1988). *Death and grief : A guide for*

clergy. New York: Accelerated Development.
Zahavi, D. (2004). *Husserl's Phenomenology*. CA:
Stanford University.

접 수 일 : 2011. 06. 07.
수정완료일 : 2011. 09. 22.
게재확정일 : 2011. 09. 22.